

## 기생충을 무서워 하자

보사부 보건국장

성 유 운



여로부터 우리민족은 자기몸의 건강을 행복의 제일조건으로 일컬어 왔습니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의 여건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것은 건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절대다수입니다.

자기 몸의 건강이 행복의 첫째조건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사상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몸은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고 모든 생산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체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공기의 고마움을 실감하면서도 항상 느끼기때문에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건강할때엔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고 지나칠때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이와마찬가지로 질병에 있어서도 만성병 질환은 당장 생명의 위협을 주지 않고 외형적으로 아무탈이 없고 보니 더욱 무관심해지기 쉬운것입니다.

기생충으로 인한 질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좀먹기때문에 대수로운 병이 아닌것으로 착각하고 가볍게 넘겨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정말로 기생충질환의 무서움을 알게되면 소름끼칠 정도의 무서운 병이

라는것을 느낄것입니다.

흔히들 기생충은 사람의 장내에 들어가 사람이 섭취한 영양분을 빼앗아 먹다가 혈액을 빨아 먹으며 산다고만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생충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갑자기 망령을 부리고 헛대로 날뛰며 침투해서는 안될 인체의 장기에 들어가서 중대한 결과를 내는것입니다.

회충이 심장에 들어가거나 충수(虫垂)에 들어가 맹장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담즙이 나오는 총수담관(總輸膽管)을 거슬러 올라가 간에 이르러 심한 증세를 나타내거나 사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혈관에 침입, 회충성 폐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폐포의 모세관을 파열시키기도 합니다.

눈에 들어가서 어떤것은 각막, 초자체 또는 망막을 침범하여 보지 못하게 하는 수도 있고, 안근 포도막등을 침입, 염증이나 조절기능을 손상시키는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뇌에 들어가면 뇌조직에 손상을 주어서 치명적인것이 대부분입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참을 정도의 증상을 나타내고 회충을 입으로 토해내는 경우를 보는데 회충이 소장밖의 위로 올라와 탈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충등 기생충은 우리 체내에 알로 들어온 다음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기생충이 무섭다는것은 이상의 몇가지 예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드시 우리는 기생충관리를 좀 더 적극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과반수는 어떤 종류의 기생충이던간에 한 종류 이상의 기생충에 감염되어 건강을 좀먹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감염현상은 기후등의 자연조건, 영농조건, 식생활양식등이 감염경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기생충 감염원(感染源)의 봉쇄입니다.

채소류를 5회이상 씻어 먹는다던가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지 말아야 된다는것등 식생활개선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어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자기몸의 건강은 자기가 지킨다」란 슬로건 아래 명예롭지 못한 「기생충왕국」이란 오명을 깨끗이 씻도록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